



청년극장 영인극장

백두산 편집부

아가리

제공 : 구국전선 인터넷



아가리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할 만담제목은 《아가리》, 《아가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입은 그대로 입이라 부르고 개나 돼지의 입을 두고는 주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입을 가지고 있는건 사람이요,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건 짐승이라... 그럼 입도 아니고 주둥이도 아닌 아가리를 가진 놈은 어떤 놈이냐?... 아마 그놈은 분명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 틀림없을터인데 세상에 도대체 그런 놈이 또 어데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놈이 바로 저 청와대를 탐내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이회창놈이라 하겠습니까. 이 이회창놈으로 말하면 세상에 뼈아져나올 때부터 매국노의 검은 피를 뒤집어쓰고 나온 놈으로서 이날 이때까지 세상 못된짓과 추한짓은 다 골라가며 한놈이니 인간쓰레기들중에서도 제일 귀퉁하고 너절하 놈이지만 오늘은 이놈의 아가리... 아니 처음엔 고상하게 그냥 《입》이라고 해둡시다. 이 입이 왜 아가리로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펴봅시다.

예, 먼저 이 이회창놈의 입은 그 생김생김부터가 참 복잡한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겨먹은건지 앞에서 보면 삐죽 내민게 신동하도 돼지주둥이 같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속 내리붙은게 개새끼주둥이 같고, 밑에서 찬찬히 올려다 보면 틀림없는 두더지주둥이이다 이거죠.

이건 뭐 개, 돼지, 메기, 두더지가 공동으로 합작하여 그놈의 입을

주물러 놓았는지 딱 요것이다 하구 꼬집어 말하기가 참 난처한데요. 글썽 생김생김은 일제통치 시기 검찰서기까지 해먹은 이흥교인지 개흥문인지 하는 제 애비놈의 피를 유전받아 그렇다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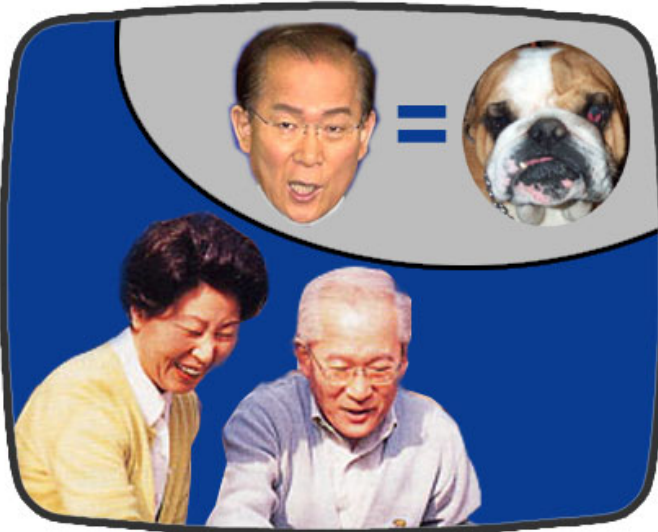
요놈의 《입》이 하는 짓은 또 어떻습니까? 이놈은 그저 돈나오는 구멍이라면 아무데나, 아무때나 《입》

을 가져다 대는데 말이죠, 그 대표적 사례가 세상에 《안풍》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안기부총선거자금모금사건》이라 하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하면 1996년 《국회의원선거》때 안기부가 《정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밀자금을 《신한국당선거자금》으로 탕진한 대형부정사건인데요. 당시 《신한국당선거대책위원회》 의장으로 있던 이회창놈은 안기부가 불법적으로 조성하여 넘겨준 《안기부자금》 900억원 중에서 500억원을 《선거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86명의 자기 패당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돈을 한입에 꿀꺽-아니 한아가리에 꿀꺽 삼켜버렸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쨌든 이자가 오늘까지 부정부패로 긁어모은 재산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니 세상에 이런 날도적놈이 또 어데 있고 이렇게 큰 입이 어데 있습니까? 그러니 이건 입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놈의 입이 사람은 또 얼마나 잘 잡아 물어메칩니까? 1957년 《공군본부법무관》으로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며 술한 애국인사들을 물어메쳤는데 말이죠.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된 《민족일보사》 사장 조용수씨 사형도 바로 이회창놈이 한 짓이다 이겁니다. 이놈은 광주봉기직후 《대법원 판사》 자리에 기어오르자 때는 이때라는 듯 뾰족한 독이빨을 드러내놓고 《한울회》 회원들도 물어메치고 부산《미국문화원》 방화투쟁자들도 씹어삼키고... 하여튼 이놈의 주둥이에 언제 한번 사람의 피가 마를새 없었다 이겁니다. 이른바 《대법관》으로 행세하던 때는 또 어쨌는지 아십니까?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연맹사건》이요, 《조국통일촉진그룹사건》이요, 《민족해방활동가그룹사건》이요... 아유, 이건 숨이 차서 다 꼽진 못하겠는 데요 오죽했으면 이놈의 여편네까지도 말입니다.





«여보, 지금 백성놈들이 당신의 입을 두고 뭐라고 지껄이는지 알아요?»

«내 입을 두고?... 그래 내 입이 어째대?»

«당신의 입이 꼭 내가 기르는 부르독크주둥이를 닮았대요.»

«뭐뭐... 개새끼가 내 입을 닮지 않고 내가 개새끼입을 닮았다 말이나?»

«예, 당신이 사람들을 잡아죽이는걸 보면 개두 꼭 미친개래요. 아이구 참...»

«미친개면 미친개, 삽살개면 삽살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팔잔데 닳치는대로 물어죽여야지 멍멍!»

«어머! 어젯밤 꿈에 본 것과 꼭 같네»

«뭐, 꿈에 봤어?»

«글쎄 어젯밤 꿈에 당신이 그 개아기리같은 입을 짝 벌리구 지금처럼 막 달려들지 않겠어요. 으흐흐»허허허...

여러분! 그 어떤네년의 꿈은 참 명꿈입니다.

자, 그다음 이놈의 입이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또 얼마나 잘하고 악담, 험담은 또 얼마나 잘 퍼붓습니까.

미국땅에 기신기신 기어가서는 «이북의 병력을 비무장지대에서 후퇴»시키고 «북의 «핵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꿰쳐 부시가 «악의 축»폭언을 내뿔도록 총동질을 했구요. 한국강점 미제침략군을 «전쟁억제력»으로까지 취울렸죠. 그러니 미쳐도 더럽게는 미친 개가 이회창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뿐인줄 압니까. 이놈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일정에 오른 첫날부터 «시기상조»요,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드는 것이요 하며 땅치않은 나발을 불어대다 못해 민족의 대질찬을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에 대해서까지 시비해 나섰으니 이놈의 입을 과연 입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둥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걸 입이라고 하면 나나 여러분들이 «그럼 내 입과 이회창놈의 입을 동격으로 놓는단 말이나»하고 의견이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주둥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 창경원동물원에서 대쪽동이 터지고 짐승들의 공동명의로 항의편지가 날아올거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 동물계에 대한 최상최대의 모욕이다!»

허허허!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부를까요? 그래 얼마전 학계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이회창놈의 입을 규정했는데 말입니다.

«예, 우리 형태구조학을 전문하는 교수, 박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나라당 이회창씨의 입은 그 형태가 분명히 개새끼주둥이입니다. 개, 개, 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후보각하의 입을 위신없이 개주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고상하게 한자풀이를 써서 개견자에다 입구자를 붙여 견구, 견구라고 부르자는걸 엄숙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 아닙니다. 우리 영양섭취화학박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회창씨의 입을 단순히 형태학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예, 이 입은 어떻게 된판인지 식물성도 먹고 동물성도 먹고 섬유질도 먹고 광물질도 먹고 유기물도 먹고 무기물도 먹고 하여튼 그 특수한 치먹는 기능을 심중히 고려해서 아무거나 다 들어가는 구멍 즉 오물구멍...»

«여보, 여보! 어떻게 감히 각하의 입을 오물구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존엄성없이...나는 언어학박사들을 대표하여 이씨의 입을 아가리, 아가리라고 부르자는걸 정중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예, 조상전래로 이 아가리라는 말은 아주 천하고 쌍스러운 입을 육하는 말로 써왔지만 바로 이 시각부터는 이 아가리란 말을 아무거나 물어뜯고 아무거나 잘 쳐먹고, 가는 곳마다 험잡 잘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무슨 짓도 가리지 않는 이회창씨의 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함과 동시에 백과사전이고 뭐고 씩씩이 뜯어고치자는 겁니다.»

«예, 존경하는 박사제씨들, 나는 역사학교수로서 방금 제기한 이 아가리라는 성스러운 칭호를 쌍수들어 적극 지지찬동하는 바입니다. 해해해...다만 문제로 되는 것은 각하의 부친님이 친일파였고 오늘날에는 본인자신이 친미파라는 점을 심중히 고려하여 우리 각하가 섭섭지 않게 미스터아가리, 혹은 아가리상이라는 부칭을 앞뒤로 붙이자는 겁니다. 즉 미스터아가리상 이렇게 말합니다.»허허허!



여러분 정말 미스터아가리상입니다.

자, 그런즉은 우리 이놈의 아가리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예?...예, 없애버려야 한다구요. 울습니다. 없애버려도 다시는 살어나지 못하게 다이나마이트를 짝 틀어막아 팡! 폭발시켜 버려야지요. 그놈의 아가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말입니다. 허허허!

자,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박 일
구국전선, 2002/09/21